다이와보노이 - 활성 산소를 분해하는 “플라티나 엘리트” 개발

다이와보노이는 활성 산소의 분해 기능을 갖고 있는 백금 나노콜로이드(nano-colloid)를 천에 먹인 기능 가공 소재 “플라티나 엘리트(Platina Elite)”를 새로 개발하였다. 이런 종류의 기능 가공 소재 개발은 일본 내 방적 업계에서는 처음이라고 한다. 2007년 춘하절용 소재부터 파자마, 내의, 셔츠, 팬츠, 이불잇 등의 용도로 판매하기 시작하여 초년도에 3억엔, 둘째 년도에는 5억엔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천에 먹인 백금 나노콜로이드는 플라티나(platina ; 백금)를 나노 레벨(nano level)로 미립자화한 것이다. 활성 산소를 분해하는 물질 중에서 대부분은 특정 활성 산소에만 작용하는 데 플라티나는 많은 종류의 활성 산소를 분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또한 플라티나 자체는 변화하지 않고 촉매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활성 산소를 분해하는 능력은 오래 지속된다.

“플라티나 엘리트”는 활성 산소의 일종인 과산화수소를 원단에서 분해하는 기능이 확인되었다. 또한 항균 가공도 곁들이고 있으며, 내세탁성도 좋다고 한다. ♣